부다피아 사이트여행

오토바이를 탄 부처님

5개월간 인도순례 생생히 전달

오토바이로 부처님의 행적을 더듬는 순례단의 소식과 포토에세이를 제공해 주는 신행 웹사이트가 최근 신설됐다.

'헬스부다' 즉 '오토바이를 탄 부처님'으로 불리는 이 사이트는 지난 7월부터 5개월동안 아소카난다(순례단장, 독일인)가 이끈 성지순례단에 대한 모든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순례목적 △포토에세이 △성지사진 △ 순례단 소개 등과 같은 순례관련 소식을 일주일 단위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더욱 생생한 인도성지순례단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일정동안 불자 네티즌이 순례단 소식에 주목하고 성원할 때, 인터넷을 사용해 사이버 성지순례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 순례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아소카난다씨는 티벳불교의 명상에 심취한 록밴드의 리드싱어로 독일에서는 꽤 알려진 가수. 그는 인류의 사랑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며 이번 순례를 기획했고, 여기에 20여개 단체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규모의 순례단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5개월간의 순례여정은 특인정진과같은 근엄하고 혹독한 수행으로 짜여졌다.

한편 성지순례관련 소식 이외에도 이 웹사이트에서는 순례단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사진도 제공하고 있다. 이 오토바이는 영화 '위대한 탈출'에서 주인공 스티브 맥퀸이 사용한 오토바이와 동일한 모델로 네티즌의 즐거운 눈요기거리.

'헬스부다'의 주소는 http://www.hellsbuddhas.com/ 이다. 〈욱〉

불교용어등 6천단어 체계정리

'북한 고고학·미술사 용어집' 출간

한자·외래어 우리말化 남-북 차이 밝혀

대부분의 불교용어를 포함해 북한의 고고학·미술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 〈북한 고고학 미술사 용어집〉(한창균 엮음·백산자료원刊)이 발간됐다.

지난 92년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가 펴낸 〈조선말대사전〉 속에 들어있는 고고학 미술사 관계 용어를 정리한 이 책은 현재 북한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 등 약 6천여개의 용어를 싣고 있다.

이중 가장 큰 특징은 한자식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것. 목각→나무새김, 원주(圓柱)→두리기둥, 나전칠기→자개박이칠그릇, 문양→무늬 등이 그 예다. 또 라한상(나한상), 련꽃(연꽃), 례불(예불) 등 모든 용어에 머리소리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카르스트(Karst·침식작용으로 생긴 특수한 지형)를 '회바위녹이'로, 애니미즘(animism·모든 사물에 혼이 있다는 고대 신앙)을 '물활론' 또는 '생기설'로 표현하는 등 외래어를 우리말화 하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청토단청(범단청), 거푸집(겹), 탁본(탑본) 등 2개의 비슷한 표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은비녀를 은동곳으로, 곽(槨)을 덧널로 표현하는 등 생소한 것도 많다.

이외에도 폐사(廢寺)→페사, 취두(鷲頭·조선식 건물에서 용마루 두 끝에 놓는 장식조각물)→추두로 쓰는 등 우리말로 읽을 때 남·북한이 서로 다른 경우의 낱말도 있다.

한편 이 책자는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 고고학과 미술사를 포함한 용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 불교관계자 및 이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있는 그대로 보라

'如實知見' 정보사회 병리 치유책

허우성교수 '정보사회 사이비성' 비판

현대문명 욕망 부추겨 감각적 쾌락 지향

"계율·선정·지혜는 허상 깨뜨리는 열쇠"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정보사회의 성격을 불교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보사회를 파생시킨 자본주의 문명 자체를 극복하고 신문명과 새로운 성격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불교의 가르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화제의 글은 최근 발간된 계간 〈철학과 현실〉 가을호에 실린 특집 '정보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허우성교수(경희대 철학과)가 기고한 '정보사회의 사이비성: 불교적 비판'.

◇허우성교수

허교수는 서두에서 정보사회로 지칭되는 현대문명은 이미 우리 모두를 오염시켰을뿐만 아니라 문명의 진실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사이비 세계'라고 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세계 독립과 평안을 가르쳐 주는 석존의 초기불교로 돌아가 내면성 회복과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교수가 규정한 정보사회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정보, 즉 유(有)라는 애욕의 대상을 생산하고, 그것을 전지구적인 통신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소비하도록 유혹하는 가상세계. 이는 특히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를 통해 오관의 영역을 만들고 신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에 부응하는 진실이 아닌 세계라는 것이다.

허교수는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광고의 작용을 불교의 지각론을 통해 살피고 있다. 광고는 가상의 힘을 빌어 인간에게 무나 공의 무한지평을 가르쳐 주려는 선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한다는 것. 선정은 사물의 실재성을 무화(無化)시켜 마음의 청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광고는 실재로 둔갑한 이미지를 이 공간에 침투시키고자 하므로, 광고에 노출된 자는 제대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에 집착을 만들어 내고 끊임없이 잡상(雜想)을 침투시키는 정보사회가 주는 행복 또한 불교가 가르치는 행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불교가 공과 무를 통한 비물질적인 자유와 행복을 말한다면 정보사회는 감관의 쾌락과 자연을 착취하는 감각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허교수는 출가와 계율의 준수, 선정(禪定), 지혜(智)를 꼽았다. 색성향미촉으로 이뤄진 세계를 경계하고, 외부 대상과 내부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 것이라는 집착을 탈락시키는 지혜(智)를 통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공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교수는 불교는 '있는 그대로 보라'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이념은 개인으로서는 진정한 자유, 행복, 그리고 능동적 자비이며, 사회로는 병든 사회의 회복이요, 인류 전체로는 중생구제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명우 기자

"영탑공원 생활공간화 바람직"

동국대 지난 18일 '장묘문화 바꿔야…' 세미나

시설 규제완화 절실…동국대 1천억규모 추진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납골시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일반인들의 혐오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영탑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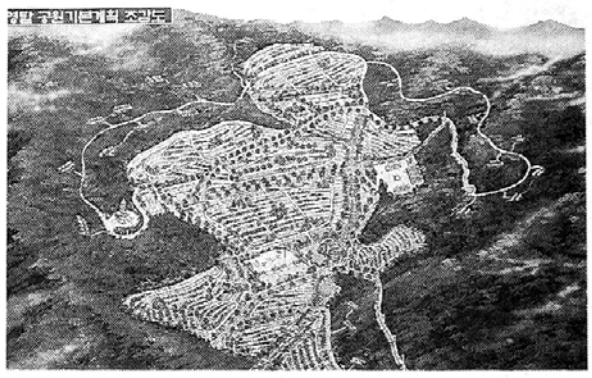
이같은 결과는 동국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영탑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연구를 의뢰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8일 개최한 '장묘문화, 바꿔야 한다'는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묘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970㎢로 남한 전체면적의 1%, 총택지면적 1937㎢의 절반을 넘는다"며 "이는 분묘 1기당 평균면적 약 13평(42.5㎡)으로 1인당 주택면적인 4.3평보다 3배가 더 크다"고 묘지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광스님(동대 선학과교수)은 '우리나라 장묘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제에서 "정부는 관혼상제 관련 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종교시설내에 설치하는 경우 일정기준이 충족되는 집단납골시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종교단체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상의 묘지시설과 납골시설을 분리하고 입지규제를 완화시키는 사업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종식소장(삼성지구환경연구소)은 "일반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친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인 영탑시설이 바람직하다" 지적하고 "영탑공원은 기존의 납골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납골문화 확산에 큰 기여가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납골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박소장은 영탑공원의 경우 탑의 참신성과 종교적 이미지가 강조되며 습기 악취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유골의 집단수장이 가능한 영탑공원은 성공성이 매우높다는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동국대가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 1천억 예산규모로 추진중인 영탑묘원 조감도. 친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동국대는 이날 세미나를 토대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 있는 학교 실습림에 1천억원 예산규모의 영탑공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김원우 기자

단 신

에밀레종 4년만에 타종 연말 종합진단보고서

훼손우려를 이유로 지난 4년동안 타종이 중단됐던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국보 제29호)의 종소리가 지난 13일 천년고도 경주에 울려 퍼졌다.

이번 타종은 국립경주박물관과 산업기술연구소, 한국범종연구회, 한국음향학회 공동으로 실시중인 성덕대왕신종 종합안전진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조사단은 각종 첨단장비를 동원, 37차례의 타종을 실시함으로써 음파·진동 포착에 성공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자료조사, 안전상태진단, 정밀실측 등을 완료해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계사

"법계가 모두 마음임을 관하라"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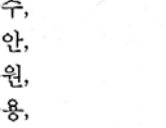
世尊座道場淸淨大光明
(세존좌도량청정대광명)
比如千日出照耀大千界
(비여천일출조요대천계)
劫火燒海底風鼓山相擊
(겁화소해저풍고산상격)
直常寂滅樂涅槃相如是
(직상적멸락열반상여시)
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
(약인욕료지삼세일체불)
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
(응관법계성일체유심조)

諸法從本來常自寂滅相
(제법종본래상자적멸상)
佛者行道己來世得作佛
(불자행도이래세득작불)

세존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니
청정한 광명이 천개의 해가 뜬듯 대천세계를 밝게 비추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바다 밑까지 태우고
바람이 산을 서로 부딪치도록 불어 닥쳐도
항상 고요하고 즐거워라
이와같이 열반에 든 상이여
만일 누구라도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려거든
모든 법계의 성품이 전부 마음으로 이루어졌음을 관하여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적멸한 상이니
불자가 이 도리를 깨닫고 행하면 내세에 성불하리라.

해설 조계사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조계종의 제1교구 본사다. 1911년 한용운 이회광 두 스님이 중심이 되어 창건했으며 처음에는 태고사라 불렀다. 1954년 불교정화운동을 계기로 조계사라고 개칭됐다. 조계사 대웅전의 주련은 부처님의 위대함, 열반의 기쁨, 법계가 마음으로 이뤄짐, 성불의 길 등 4수의 게송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제3회 "문화재 보전 수리기능인 작품전"

초대일시 : 1996년 10월 8일~27일(오후3시)
장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내 궁중유물전시관
주최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후원 : 문화재관리국·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불교신문사·불교방송국(라디오·TV)
취지 : 우리 민족은 지난 5천년동안 불행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창조하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전승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에 우리 1천4백여 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문화재 복원수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한편 틈틈이 연구제작한 작품들을 한데모아 세번째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꼭 오셔서 관람하시고 격려와 편달을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 10월 일

우리 협회는
1)문화재 보전수리 및 고전건축과 각종불사(佛事)에 소요되는 고도의 기량과 자질을 갖춘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1988년 8월에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입니다.
2)소중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원형보전수리하고 나아가 투철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고전건축 및 각종 불사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730-7774, FAX : 730-7773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광성빌딩 601호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회장 전 흥 수

임 원 명 단
회 장 : 전흥수
부 회 장 : 김익홍, 장효순, 이중구
상임이사 : 이진형(기획), 허길용(섭외), 이재순(홍보), 심용식(재정)
이 사 : 신응수, 정재규, 정천수, 김광열, 정문길, 이주탁, 이칠형, 이광수, 김식경, 김재만, 김성채, 최용규, 전연호, 윤주동, 이부춘
감 사 : 윤정우, 최교준
명예회장 : 장영근
고 문 : 손주항, 김성준, 이혜철

출품회원(기능인)명단
장영근, 조호준, 심용식, 조계수, 전홍수, 이중구, 이정환, 고석산, 김광열, 이재휴, 김복수, 이재순, 김진성, 김만환, 김식경, 전연호, 김재범, 심철호, 조찬웅, 김성희, 정성길, 윤희신, 이광수, 김익홍, 김연호, 정문길, 박문열, 김영길, 최교준, 류수관, 김동환, 안강수, 송안섭, 김수열, 임형철, 김대현, 양봉철, 윤부철, 김태길, 임성안, 한봉석, 송근영, 박병래, 이방호, 김광현, 김영배, 이기경, 유중원, 허길용, 이진형, 박찬수, 김광열, 이재휴, 김복수, 차영근, 오윤용, 임영규, 제영전, 강영재, 김성호, 배금용, 박성규, 이정석, 오세종, 고수익